

연중 제 32주일

제 1독서 : 지예 6, 12-16

제 2독서 : 1데살 4, 13-18

복 음 : 마태 25, 1-13

# 숲 정이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마태 25, 13).

## 강론

### “님은 오신다”

권이복 신부/순창 천주교회

얼마 전 아이들 없는 유아원에 녹슬어가는 놀이기구 몇 개를 성당 빈 공간에 여기저기 잘린 채로 가져다 놓았다. 아직 고정도 안된 그런 상태다. 그런데 이 몸것의 의미를 알아채거나 한 듯 이제 성당은 온통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성당 여기저기엔 책가방들이 무더기 무더기 쌓여 있고 떠돌고 싸우고 "아웃" "세잎" 고함 지르는 소리에 정신이 사납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으레 썩은 쓰레기가 수북하고, 심어논 잔디마저 파헤쳐 놓는다. 사제관 주위까지 물려와 뒤고 설치는 바람에 이만저만 분심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난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우나? 모두모두 꼭꼭 껴안아 주고 싶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사랑이 그립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나의 이 처절한 '갈증'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했으리라. 나에게 큰 희망이 하나 있다. 내 일생 다하여, 아니 영원을 걸고 얻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으니 이는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젠 안다. 그 어떤 안락도, 부귀도, 권력도, ... 세상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이 '사랑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난 영원히 목마름에 헐떡일 수 밖에 없음을... 그러기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아픔도 바보스러움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또 '사랑'이 아닌 것들로에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특히 안락과 영광에로의 본능적 성향과 피투기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그렇다. 남은 것이라곤 병들고 가난한 몸뚱이, 이젠 날로 기울고 시들어 가는 이 초라한 모습, 그나마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허나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은님을 기다리는 내 등불의 기름이 되어 언젠가 오실 그 '님'을 뵈옵게 할 것이리라. 율법학자 같은 학식도, 바리사이 같은 철저한 계율과 삶은 없어도 사두가이 같은 돈과 명예는 없어도 오직 사랑하고픈 나의 이 '사랑의 갈증'이 있기에 언젠가 꼭 오실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굳게 굳게 믿는다. 아멘.

## 소리

### “가을을 보내면서”

벌써 입동(立冬)이고 높은 산에는 진즉 눈이 내렸다. 아직 산과 들의 단풍이 고운 속에 어딜 가나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열린 채여서 보기가 좋다.

감이 그대로 열려 있는 것은 감 따는 품삯이 비싼데 비해 시중에서 팔리는 감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값이 싼 까닭은 맛좋은 신품종 사과와 밀감, 양다래 등에 밀려 인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어찌 감 뿐인가. 옛날 얘기로는 어린아이 울음을 똑 그치게 했다는 꽃감도 요즘 청소년은 별로 먹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풍습도 달라지면서 우리의 음식문화가 변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음식이 하나씩 제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귀중한 보물을 잃은 것만큼이나 허전하고 아쉬운 느낌을 자아낸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즐겨 먹어온 쌀밥과 떡과 전통 과일을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삶의 고락을 같이 해왔다. 이 같은 전통음식은 예로부터 이 민족을 지탱해 준 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잃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터이다.

먹는 이가 자꾸 줄어들면 감나무를 심는 이도 줄어들 것이고 언젠가는 감나무가 관상수쯤으로 전락해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날이 오지나 않을런지 모를 일이다.

감나무가 없는 늦가을 시골 풍경은 얼마나 삭막할까. 겨울의 문턱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 [진]

###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34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예사오냐?” (창세 27,1-26)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중 인물들에 대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평 한 그릇으로 형 예사오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야곱의 파렴치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거짓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비를 통해서였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자유로운 선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갑자기 세월을 비약시킨다. 이사악이 몹시 늙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전한다. 이사악은 노인이 되어 눈이 어두어졌으니 회복 불가능한 장님이 된 셈이다. 그래서 저자는 맛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등의 감각적인 동사를 자주 쓰고 있다. 이사악은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예사오를 불러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빌어 주겠으니 화살통과 화살을 메고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달라.”고 분부한다. 축복은 일반적으로 죽을 때나 이별할 때 주어지는데,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력을 축복받는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이 축복은 되물릴 수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이사악은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을 축복의 상속자로 내정한 후 아내와 작은아들 야곱에게 알리지 않고, 예사오에게 은밀히 지시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는 이를 엿듣고, 이사악의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이에 야곱은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함으로써 어머니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리브가는 일이 잘못되어 저주를 받는 경우엔 자기가 그것을 대신 받겠다고 야곱을 안심시키고, 야곱을 밖으로 내보낸다. 리브가는 아들이 끌어 온 염소 새끼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염소 가죽을 벗겨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준다. 그리고 예사오의 옷을 입혀 준다. 이에 이사악은 이 옷에 베인 예사오의 냄새를 맡고 의심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 주게 된다.

이어지는 이사악과 야곱 사이의 대화는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앞모 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



을 청하는 아들이 분명 예사오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목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만져 보고, 냄새를 맡아 본다, 첫번째 의심스러운 사실은 음식이 너무 빨리 준비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임기응변으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금방 짐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술책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지만, 저자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이사악은 “네가 정말 예사오인지 만져 보아야겠다.” 하면서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리브가가 철저히 해 놓았다. 염소 가죽이 덮여진 야곱의 손을 만지며 이사악은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여 채차 묻는다.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예사오냐?” 이에 야곱은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한다. 이사악은 청각보다는 촉각에 더 의지하여 의심을 풀고 야곱이 바치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신 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라고 한다. 입맞춤은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악은 야곱이 입고 있는 옷에서 예사오의 몸냄새를 맡고, 의심없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는 인간의 지성이나 윤리를 뛰어넘는 계획들이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판단만을 최선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병풍, 가리개, 족자 전문  
**동양자수**  
김용섭(마르띠노)  
홍은숙(모니카)  
대야 천주교회 상가  
☎(0654)451-3928  
(0654)451-6347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축! 확장 이전  
결혼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만지 제작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 성당 사거리  
☎82-9005

(有) **경일건설**  
조립식 건축, 사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콘테이너 하우스  
김해선(레이지오)  
구 소방서 ↔ 흥국생명 중간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13. "절망과 희망"(핵 문제)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시작된 핵무기 경쟁은 이제 가공할 만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10-25메가톤(Mt)급 핵폭탄이 탑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천여 기가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20Mt 핵폭탄(TNT 2000만 톤에 해당)의 경우, 10km 이내는 폭풍으로, 5km 이내는 초기 방사선으로, 50km 이내는 열에 의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고 한다. 1983년,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무기가 모두 발사된 뒤 60일이 지나면 지구의 북반구가 섭씨 영하 45도가 되어 어둡고 긴 핵겨울이 계속된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학자들이 계산해 낸 적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영화 "그날 이후"로도 만들어져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1957년에 100여 개국이 모여 발족한 기구이다. 이라크가 이 기구의 사찰을 거부하자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이 현재 이와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다. 풀려 나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중국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세계가 다시 새로운 긴장으로 치닫고 있다.

핵전쟁의 피멸적인 결과는 절망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을 지켜 보고 있다면 과학의 힘이 사람들을 부질없는 만용으로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선포하지 못하는 과학은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 교회의 올바른 길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교구 소식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11월22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파워 오브 윈
- 1. 평신도주일 2차 헌금 : 11월14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2. 이병호 주교님 성서사도직 회의 참석차 출국 : 11월10일-22일. 많은 기도바랍니다.
- 3. 소양 성당 성전신축 기공식 : 11월7일(일) 오후3시 소양면 황운리, 주례-이병호 주교.
- 4. 선교 체험, 성공사례 수기 공모 : 11월20일까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문의 85-2935.
- 5. 천호 피정 안내 : 11월11일(목) 주례-그리스도인의 기초 신심과 사명, 강사-김봉희 신부, 11월13일-14일 주례-죽음, 강사-김준수 신부, 문의 73-6600.
- 6. 빛두레 신앙인 학교 개강 : 11월8일-12월13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전동 성당 교육관.
- 7.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13일-14일 나바위 피정의 집.
- 8. 전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2주년 총회 : 11월11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 9. 로사리오회 1일 피정 : 11월14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 10. 레지오 마리아 질적 성장을 위한 토론회 : 11월13일(토) 오후2시-9시 전동 성당 교육관.
- 11. 휘폴라레 모임 : 11월7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국교생부터 일반인.
- ※ 축! 영명 : 10일(성례오) 박종중 신부님.

- **성소모임** 사랑의 씨튼수녀회 : 11월14일 오후2시 금암동 성당 교육관(0652)212-3233.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11월14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0653)842-41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하천 오염

하천 오염의 주범은 합성세제와 공장 폐수입니다. 합성세제와 주방세제 등의 사용과 선물을 하지 말고 비누와 밀가루, 쌀뜨물 등을 사용합니다.

**셀프 세탁 전문점**  
이태리 베스트 크리닝  
양복 4~5벌 8,000원 28분 완성  
체인점 상담·문의 환영  
이 흥 자(그리센시아)  
인후동 현대APT 입구(안골)  
☎ 232-0540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 향 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알림**  
유기 농업,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 생명의 먹거리 생산에 힘써 온 가톨릭 농민회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먹거리(농산물)상담, 공급.  
☎ (0652) 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 권이복

요심이 (1054) 김병오



**신규직원 채용공고**  
1.모집인원 : 남자직원 0명 2.응시 자격 : 고졸이상 병역필 및 면제자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②주민등록 등본 ③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④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4.제출기한 : 11월15일까지 (88-4404) 전주북자신문협동조합

**감사드립니다.**  
곳은 날씨에도 도,농간 사랑 나눔 잔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장 황의목(파로)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도)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사목회 임원 명단: 김동주(유스티노) 부회장-이창남(스테파노), 박일천(요한), 김규배(베로니카) 총무-최만석(사은) 부총무-정영덕(미사엘) 감사-박태복(마태오), 장성복(바오로) 교문-박춘근(스테파노), 노충남(안드레아), 지금수(그라시아), 안관용(루가) 선교-최철영(아구스티노) 교육-한기성(레오) 재정-노관석(알로이시오) 전례-노광용(비오) 홍보-이창남(스테파노) 청소년-자모회장, 사회복지-빈첸시오회장, 애령-애령회장, 여성-부녀회장, 구역-서성남(모니카) 2. 사목회 상임: 12일 저녁미사 후, 3. 초등부 교사 성탄 연수: 13-14일 4. 중·고생 성지 순례: 14일 나바위, 5. 모임: ①부녀회(9일 어머니미사 후) 6. 다음 주일(14일)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있음, 7. 금주 청소년: 남노1,2반, 차주 청소년-남노3반, 중노1반.
- ☐ 지난주 봉헌금: 872,300원 ☐ 교무금: 1,06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헌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각 신심 단체 결산 및 신년 예산안 제출: 21일까지.
  2.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3. 회합: ①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구역 분과회-9일 오전 10시 ④안나회-11일 오전 10시 ⑤여성 분과회-13일 오전 10시 ⑥요셉회-14일 공식미사 후 ⑦꾸리아-14일 오후 2시 ⑧청년회-14일 저녁미사 후
- 축! 결혼:** 14일 12시, 신랑-최선홍(실베스텔) 군, 신부-손숙경(썬마) 양.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전호송 부부, 봉헌-김성민 가족.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오장수 부부, 봉헌-강기연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 11월은 위령 성월.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 후원회비 납부의 날.
  2. 사목위원 임명: 회장-양주태, 부회장-오철규, 강순옥, 선교-강덕용, 전례-김영신, 재정-김중석, 교육-이옥봉, 홍보-김봉길, 청소년-최원규 사회복지-박귀철, 애령-최상옥, 구역-최상운, 여성-이석남, 총무-정광섭, 감사-한동욱, 유순천, 수고 하셨습니다.
  3. 모임: ①요셉회,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 주일.
  4. 평신도 주일: 다음주 2차 헌금, 5. 제대꽃: 오칠규 5반원.
  6.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래 봉헌-유준근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484,670원(123,710)  
☐ 교무금: 152,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연중 제 32주일! (11월은 위령 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김명웅(프란치스코) 사목회장님, 사목회 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목회 임원 명단: 사목회장-민병부(스테파노) 부회장-이주철(야고보), 유철갑(베드로) 감사-김영근(요한보스코), 강기호(요셉) 선교부장-남태관(아귀레오) 전례부장-유용산(바오로) 교육부장-김강열(아오스딩) 재정부장-송대영(다니엘) 청소년부장-김배근(스테파노) 사회복지부장-김인수(그레고리오) 수고하셨습니다.
  3.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있음.
- ☐ 지난주 봉헌금: 957,600원 ☐ 교무금: 84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연중 제 32주일  
◎ 전 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목회 개편- 회장: 이규세(다마스)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사목회,
  3. 미사 시간 변경: 주일 공식미사, 금요미사-오전 10시로,
  4. 자모회: 11월 12일 금요미사 후,
  5. 구역, 반 미사: 11월 10일(수) 대명까지 101동 1215호,
  6. 가정 방문: 11월 10~11일(수, 목) 7. 봉성체: 11월 13일 오전,
  8. 목요 예비자 반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8시)
  9. 초·중·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성탄예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격려바람, 10. 청소년 봉사: 3구역 3반, 4반.
- ☐ 지난주 봉헌금: 645,700원 ☐ 교무금: 74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명 행

-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1. 금주: ①초등부 주일학교 성지 순례(여산-나바위)-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②올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2. 재속 글라라 형제회 피정: 8일(월) 천호 피정의 집(오전 7시30분 출발)
  3. 돈보스코회: 10일(수) 오후 7시30분.
  4. 초등부 교리 교사 성탄 연수회: 13일-14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5. 유아 세례: 13일(토) 오후 3시-대상자 미리 접수 바람.
  6. 차주: ①평신도 주일(2차 헌금)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7. 글로리아 성가대 정기발표회(본당 주보 성인 경축): 12월 4일(토) 오후 7시30분(예정)
- ☐ 지난주 봉헌금: 2,051,7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강론: 강상근 회장.
  2. 사목회 상임 위원회: 11월 저녁 8시, 사목계획 및 예산안.
  3. 군 복무중인 자녀 주소 접수: 사무실에 다음주까지 접수.
  4. 초등부 교리 교사 성탄 연수: 13-14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5. 화의: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10일 어머니 미사 후, 빈첸시오회-10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2월 9시, 성체회-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6. 가정 방문: 9일-5-1반 전 9시, 5-2반 후 2시30분, 11일-5-3,4반 전 9시, 6-1반 후 2시30분, 12일-6-2반 전 9시, 7. 전례 담당자: 계시된 차례를 지킵시다.
  8. 삼익 피아노 대리점 축성식: 13일 11기30분 코야 3층 김안철.
  9. 부녀회 등반대회: 8일(월) 오전 9시 모악산.
- ☐ 지난주 교무금: 1,319,940원 ☐ 교무금: 1,69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영세자 모임: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 7시.
  3. 반모임: 9일(화) 오전-화산2(B), 동산, 오후-평화, 저녁-삼정, 10일(수) 오전-금성, 거성화산, 오후-화산2(A), 비사별, 11일(목) 오전-오성 은하, 오후-오성 은하2.
  4. 성모회, 자모회: 다음 주일 미사 후.
  5.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6. 부부 성가대 창단: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금주 전례: 김경숙, 한병갑, 독서-봉헌: 육연숙, 강희연, 차주 전례: 최정순, 손금구, 독서-봉헌: 이만자, 김길호.
- ☐ 지난주 봉헌금: 472,800원 ☐ 교무금: 907,000원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 32주일입니다.
1. 성모회: 11월 10일(수) 오전 11시.
  2. 자모회: 11월 16일(화) 오전 11시.
  3. 성가 발표회: 제2회 파티마성가대 발표회-11월 20일(화) 오후 7시30분(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11월 14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축! 결혼:** 신랑-김용(요셉) 김익창 자, 신부-문은희(마리아) 김배현 누, 11월 7일(일) 오후 1시.
- 미사 안내: 금주-황금 궁전, 천주 성총, 차주-파티마의 모후, 능하신 모후(미사 안내자는 해당 미사에 철저한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49,680원 ☐ 교무금: 4,62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 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8일(월) 오전 10시 ③자모회-9일(화) 오전 10시 ④구역분과-11일(목) 10시 미사 후, ⑤성모 성성회-12일(금) 10시 미사 후.
  2. 가정 방문: 10일(수) 오후 2시-롯데6,8반, 11일(목) 오후 2시-롯데7반, 12일(금) 오후 2시-효자 제일 타운.
- \* 사목회 각 분과별, 제단체에서는 94년도 계획서와 예산안을 오늘까지 접수, 청년 성가 대원 성가 연습-일요일 오후 6시, 차주 모임: 올드레아, 기우회, 제대회, 반석회.
- 금주 전례: 해설-정원희, 독서①이종표 ②정명희 봉헌 안내-정진호 부부.  
차주 전례: 해설-조신욱, 독서①이건태 ②김기순 봉헌 안내-임병용 부부